

한보광 교수의 글을 읽고

李 平 來*

한보광 교수(이하 필자)의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극락왕생행의 正因은 發菩提心이며, 念佛은 助因일 뿐이라는 요지이다. 菩提心이란 다름 아닌 一心이라는 것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빌려서 자신의 佛教觀을 드러내려고, 이와 관련하여 『대승기신별기』와 『대승기신론소』등을 저술하였다. 원효는, 이들 저서 속에서 一思想=如來藏思想을 세워 자신의 불교사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정토사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필자의 글 脚註(1)·(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와 『아미타경소』의 大意를 一心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원효의 이와 같은 입지를 살리기 위하여 [2. 원효의 一心·如來藏]장을 설정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이것을 發菩提心과 관련시켜 논술하려는 의도로 [3. 원효의 一心·如來藏과 발보리심 문제]를 설정하여 Anuttara samyak sambodhi citta(菩提心) = 일심·여래장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淨土宗의 所依經典으로 되어 있는 淨土三部經, 즉 康僧鎧譯 『무량수경』(曹魏, 252), 曇良耶舍譯 『관무량수경』(劉宋, 425~453)과 鳩摩羅什譯 『아미타경』(姚秦, 402)에서의 정토사상의 핵

* 忠南大學校 文科大学 哲學科 敎授

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4. 정토삼부경의 발보리심과 왕생행]을 설정하여 논술하고 있다. 정토사상의 趣意라고 할 수 있는 정토왕생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正因과 助因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정토왕생의 正因은 어디까지나 발보리심이며, 염불은 助因일 뿐이라고 한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無量壽經』에서는 三輩往生에 모두 發菩提心이 전제되고 있고, 『觀無量壽經』에서는 三福往生에서 발보리심을 正因이라고 하며, 三輩九品에서는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阿彌陀經』에서는 아미타불의 護念에 의해 아누다라삼악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석가모니불의 보리심증득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에서는 三輩往生의 正因說과 하배왕생자의 隨事發心과 順理發心を 설하고 있다. 특히 전자를 不定性人의 발심이라고 하였고, 후자를 菩薩性人의 발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阿彌陀經疏』에서는 少善根福德者의 왕생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대하여 發菩提心만 하게 되면 왕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먼저 『대승기신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심·여래장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필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한다. Aśvaghōṣa의 저술인 『대승기신론』 속에서는 Mahāyāna(摩訶衍, 大乘) = 法(Dharma, 達磨) = 衆生心 = 한 마음(ekacitta, 一心)의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한다.

불교는 니르와아나Nirvāṇa를 성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계로 나누며, 전자를 생사의 세계, 미혹의 세계 또는 세간이라 하며, 후자를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 또는 출세간이라 한다. 그래서 세간의 법이 있고 또 출세간의 법이 있다. 衆生心에는 삶과 죽

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세계의 존재(染法)가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이루어 윤회를 끊어버린 세계의 존재(淨法)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잘 관조하여 보면, 善과 惡 또는 淨法과 染法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로 和合되어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을 한 마음(一心, ekacitta)이라고도 부른다. 보는 이에 따라서 淨法과 染法은 둘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서로 다르다고도 볼 수도 있다. 凡夫의 마음을 기준으로 한 衆生心을 문제로 할 때는 淨法과 染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범부가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되면 染法은 소멸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유추하면 범부의 중생심에는 善·惡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본성은 자성청정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승기신론』의 입장은 因佛性으로서의 佛性を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法相宗의 唯識說에서는, 일상심의 근저로서의 아알라야식Ālaya vijñāna를 妄識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논에서의 Ālaya vijñāna는 眞妄和合識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眞妄和合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이란 과정을 거쳐 Buddha가 되면 妄은 消失되어버리고 眞識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眞識이 범부에게서는 自性清淨心이며,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무명에 가려져 있는 상태일 때를 如來藏tathāgatagarbha이라고 부른다. 중생이란 말을 넓은 의미로 생각하여 보면 Buddha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생심에는 世間法(染)과 出世間法(淨)이 화합한 상태와 세간법은 소멸해버리고 출세간법만이 남아 있는 상태와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음1] [2. 원효의 일심·여래장]에서, “이 중생심은 『기신론』에서 생멸문이라고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여문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논평자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중생심이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뉘어 서술되기 때문이다.

[물음2] 『무량수경』에서는 上輩·中輩·下輩의 三輩가 모두 Anuttara samyak sambodhi citta를 일으켜야 極樂往生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배가 일으키는 각각의 Anuttara samyak sambodhi citta는 같은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물음3] 『관무량수경』에서는 世福·戒福·行福의 三福이 正因이 되어 極樂往生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한편, 註(25)에서는 上品下生은 왕생행으로서 Anuttara samyak sambodhi citta를 일으켜야 하고, 그 이하의 下品에서는 염불만으로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正因으로 삼는 삼복과 상품하생에서의 Anuttara samyak sambodhi citta와 그 이하의 왕생행으로서의 염불은 彌陀往生修行에서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또 九品 각각의 왕생행의 정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음4] 『무량수경』의 발보리심과 왕생행, 『관무량수경』의 발보리심과 왕생행, 『아미타경』의 발보리심과 왕생행이라고 소제목을 붙여서 정토삼부경의 왕생행을 서술하고 있으나, 각 경의 왕생행의 내용에 관하여 소개한 것을 보면 반드시 “발보리심과 왕생행”이라고 만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음5] 원효는 발보리심을 왕생행의 정인으로 삼고 있으며, 발보리심을 隨事發心과 順理發心으로 나누며, 수사발심은 不定性人의 발심이며, 순리발심은 菩薩性人의 발심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두 발심을 또 四弘誓願과 관련지어서 서술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四弘誓願과 관련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면 어떨까?